

“훌륭한 번역은 미래 학문의 밑거름”

텍스트·번역자 선정에 신중해야... 무책임한 원칙도 문제

이정우
서강대 교수·철학

최근에 무개있는 학술서적의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의 학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에 들어와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문의 영역에서도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외국서적을 부지런히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인문학 분야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활발한 번역 작업은 반가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번역이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나 역시 여러권의 외국 저작을 우리말로 옮겼지만 지금 다시 보면 문제점 투성이. 이 기회에 학술서적 번역의 몇 가지 요건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저작 선정도 중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번역할 저작과 번역할 인물의 선정이다. 번역할 저작을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현대의 저작보다는 고전을, 즉 마땅히 번역되었어야 할 저작이지만 아직 번역이 안된 고전을 택해야 하며, 그 저작을 번역할 가장 적절한 인물이 번역을 맡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대로 된 진전도 나와 있지 않다. 반드시 번역되어야 할 고전들이 책임자에 의해 하루빨리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전의 번역은 책임있는 편집자들에 의해 몇 가지의 총서에 집약하는 것이 좋다. 좋은 번역인데도 독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현재 몇 종류의 고전 총서가 나와 있으나 번역되는 책은 늘 번역되고 빠지는 책은 늘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필수적인 저작이면서도 빠져 있는 저작들이 빠른 시일 내에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친절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번역 작업은 외국어를 우리 말로 옮기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외국어 저작과 우리 독자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메워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원문만을 번역해 놓는 것은 좋지 않다.

우선 번역되는 저작의 저술 배경, 저자의 기본 사상, 저자의 사상에서 그 저작이 차지하는 위상, 번역의 원칙, 저작의 줄거리,



학술서다운 치밀한 논리가 담긴 번역이 요구된다.

주요 개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문 중에서 맥락을 모르면 이해되지 않는 구절은 역주를 달아주는 것이 좋다. 특히 고전을 번역할 때 이러한 역자 해설과 역주는 필수적이다.

개념적 엄밀함 갖춰야

세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표현상의 문제이다. 지나치게 고답적인 말이나 둔중한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되도록이면 경쾌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지나쳐서 학술서적을 소설처럼 번역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술서적은 학술서적다운 치밀함과 논리 정연함, 그리고 개념적 엄밀함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에 있어’ ‘...되어지다’ ‘...의 ...의 ...의’ 등과 같은 어색한 표현들도 피해야 할 것이다.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어 실력보다도 국어 실력이다.

네번째는 번역에 대한 뒷받침의 문제이다. 번역 작업은 어쭙찮은 저술 작업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한 권의 좋은 번역서를 내기 힘들다. 그러나 번역에 들어야 하는 노력에 비해 번역자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다. 교수 임용이나 학술업적 평가 등, 여러 경우에 번역은 늘 대접받지 못한다. 또 애써 번역해도 그에 따라오는 경제적 보수가 너무나 미미하다. 국가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번역하는 사람 자신의 성실성이 중요하다. 자신이 없는 번역

은 말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일단 맡은 번역은 책임있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려워도 무책임한 번역서를 내서는 안된다. 또 출판사 편집위원의 자질도 중요하다. 편집위원이 저작의 내용을 모르

면서 어떤 언어적 원칙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번역에 많은 노력 투자해야

번역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나라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자체의 철학 전통이 미미한 일본은 다른 나라의 각종 저작들을 꾸준히 번역해냄으로써 학문의 밑바탕을 이루었으며,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고도의 문화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우리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관심을 가지게 된 프랑스 철학서적들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는 70년대에 대부분의 주저들이 번역되어 나왔다. 그 결과 80년대 이후에는 이 성과들을 종합한 독창적인 저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도 학문적 도약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다 훌륭한 번역서들이 많이 나와 미래 학문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도서정가제’ 둘러싸고 신경전

‘재판매가격 유지 촉구’ 패소 판결에 출혈 항소 방침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도서 할인판매업체에 책을 공급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도서정가제’ 시행을 촉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특별 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출판사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재판매가격유지를 촉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위법이라고 판결. 출혈은 이에 즉각 대책회의를 갖고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94년 12월 초 프라이스 클럽에 책을 공급, 할인 판매한 22개 출판사에 출혈이 도서정가제 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들 출판사가 책공급을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출혈이 출판사의 위임없이 도서정가제를 촉구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며 출혈측에 시정명령과 위법행위를 공표할 것을 요구했고, 출혈

이 이에 맞서 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출혈의 한 관계자는 “출판사의 등록이 자유화된 만큼 출판사 모두에게 위임장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임장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차후에 이들 출판사들이 다 위임장을 제출했으며 도서공급 중단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출판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제소배경을 설명한다.

출혈은 이번 재판결과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문제로 도서정가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데도 일부 언론에서 마치 도서정가제가 파괴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도서정가제에 대한 새삼스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도서정가제 시행요구가 강제적인 것이었나 자발적인 것이었나를 놓고 공정위와 출혈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이 머지않아 터질 ‘도서정가제 전쟁’의 전초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